

# 명품 승원팰리체 리버시티 강진의 랜드마크 우뚝 선다



강진 승원팰리체 투시도.

## 승원건설그룹



김승구 승원건설그룹 회장

뛰어난 기술·시공능력 등 실력 위에 내실과 신뢰, 윤리경영을 내세워 탄탄한 성장을 일궈낸 '승원건설그룹(회장 김승구)'이 올해도 '분양 완판' 신화를 써내려 가기 위한 도전에 나선다.

승원건설그룹은 2001년 1월 19일에 창업한 승원종합건설(주)를 모태로 23년차에 접어든 중견 건설기업이다. 11개의 건설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명품 아파트 '승원팰리체'라는 주택 브랜드로 인지도를 확장해가고 있다.

목포와 해남 등 전남지역은 물론, 충남지역까지 영역을 확대해 분양 때마다 완판 신화를 기록, 매년 뚜렷한 성장과 함께 재무구조가 건실한 강소기업으로 입지를 다졌다.

'행복'을 의미하는 '팰리체'(FELICE)는 이탈리아어로 따뜻하고 행복이 있는 주거공간, 혁신적인 디자인과 실용적인 평면배치, 편의성 높은 명품 고급주택 아파트 건축을 위한 바람을 담아 론칭했다. 이런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인구가 적고 생활편의시설이 낙후된 시·군 지역 단위에서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승원건설그룹의 평판과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실력에서만 나온 게 아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며 신뢰를 쌓아왔고, 회사 성장의 기반이 되어준 협력업체를 비롯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추구하면서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우선 승원팰리체는 단순히 분양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입주자 사전점검을 하기 전 승원건설 임직원들은 직접 각 세대를 점검해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 최상의 주거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입주 전 임직원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입주 이후 즉각적인 하자보수(A/S) 처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온라인 하자시스템'을 도입해 시간 하자 접수부터 처리현황까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처리현황 문자통보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한 A/S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분기별 임직원들이 단지 점검을 펼치는 등 입주 후에도 아파트 단지를 지속 관리하고 있다. 담당 직원이 현장 실사를 통해 점검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직접 처리해 입주민들로부터 사후관리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자랑한다.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비 지출내역에 대한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지출을 줄이고 투명한 관리비 운영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사업 현장과 민간 도급은 말지 않고, 자체 시공과 관공 공사 현장만 맡아 운영하고 있다. 경기침체 등 위기 속에서도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공사대금을 익월 25일자로 어음이나 수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이처럼 안정적인 사업 운영으로 탄탄한 재무구조

### 올해 '온라인 하자시스템' 도입 입주 전·후 철저한 주거 관리

### 탄탄한 재무로 신용평가 A 획득 협력업체·지역에 상생 나눔실천

### 전남 이어 충남까지 완판 행진 명품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 확장

를 갖추면서 지난 6월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A등급을 획득했다. 승원건설과 비슷한 규모의 중소기업 대다수는 'B등급'을 획득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추면서 이례적으로 기업 규모에 비해 높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원건설그룹의 '나눔경영'은 지역사회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쾌척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의료물품 지원사업, 산불 복구지원을 위한 후원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함께 국가 공공자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에도 매년 참여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 30주년을 맞아 올해 6월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고락을 함께한 임직원들에게는 업계 최고 대우로 행복을 나누려 하는 '진짜 기업다운 기업'의 면모를 보여준다. 복리후생제도는 광주·전남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연간 최대 800만원 지원, 수술 및 입원의료비 지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유명 리조트 2박 3일 무료 숙박권 지원, 복지포인트 지원, 3년 이상 장기근속직원 대상 연차별 승급 포상 등을 시행 중이다.

올해 전 직원 태국 방콕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등 해외연수와 함께 숙소 제공, 생일·기념일 선물 등 실질적이고 수준 높은 복지제도를 발굴·운영하기 위해 진심을 다하고 있다.

김승구 승원건설그룹 회장은 "행복을 의미하는 '팰리체'라는 브랜드에 걸맞게 정성과 세심한 배려를 통해 주거공간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겠다"며 "정직과 원칙, 신뢰를 지키면서 광주·전남 지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지역대표 건설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오는 24일 문을 열 '강진 승원팰리체 리버시티' 모델하우스 내 거실(위)과 침실.

## 탐진강 리버뷰...프리미엄 임대 '강진 승원팰리체 리버시티'

### 226세대 조성...2025년 9월 입주 세대별 창고·커뮤니티 시설 강점 교육·교통·생활 인프라 등 탁월

승원건설그룹은 이달 강진군 최초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이 포함된 프리미엄 명품 임대아파트 '강진 승원팰리체 리버시티'를 선보인다.

'승원팰리체'라는 브랜드의 뛰어난 설계 능력과 품질관리 기술을 적용한 품격을 갖춘 특화설계로 차별화를 꾀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진 탐진강 신(新) 주거타운에 들어서는 단지는 전용 84㎡(구 34평), 지하 1층-지상 17층, 4개 동, 226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예정은 2025년 9월이다.

강진군 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4베이 설계로, 전 세대 정남향 배치로 채광·통풍을 극대화한다. 현관 대형 수납공간과 거실, 주방 펜트리는 물론, 주방 알파룸과 안방 특장형 드레스룸 등 승원건설이 보유한 남다른 수납공간 확보 기술이 적용되는 등 수준 높은 평면구조를 보여줄 예정이다.

품격을 높인 특화설계로 캠핑용품, 계절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세대별 전용 창고가 마련된다. 강진에서 가장 많은 세대당 1.4대의 넉넉한 확장형 주차공간도 확보, 백화점식 주차관리 시스템과 전



주방



세대별 창고

기차 충전소로 편의성을 높였다.

골프연습장과 휘트니스센터, G·X룸, 작은도서관 등 지역 최초 및 최고의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탐진강을 바라볼 수 있는 뛰어난 조망과 강진종합운동장, 강진천변생태호수공원 등 쾌적한 환경을 비롯해 인근 계산초와 강진동초, 강진중, 전남생명과학고 등 도보권 통학이 가능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강진읍 전역을 차량 5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는 데다, 강진버스여객터미널을 비롯 2번국도와 18번 국도, 남해고속도로와 광주-완도고속도로(2026년 개통예정)를 이용해 광주 등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 역시 수월하다.

최첨단 홈 IoT 시스템은 물론 현관 에어샤워, 세

대내 공기정정, 미세먼지 알람정보 등 예코 솔루션을 갖춘다. 강진군청과 읍사무소, 보건소, 법원, 병원, 마트 등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승원팰리체는 2021년 7월 '2021 상반기 한경주거문화 대상'을 수상, 지난해 1월 역시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협회 등이 주관하는 '제26회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무엇보다 올해 4월 무려 3년 연속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프리미엄 아파트 부문)을 수상하는 등 화려한 수상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강진 승원팰리체 리버시티 모델하우스는 오는 24일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213-8에 문을 열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